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전사(前史)

-한강 『희랍어 시간』(2011)을 중심으로-

임 혜 민*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1’의 세계: 문화로부터의 이탈과 신체성의 감각
  1. 언어-인간 사이보그
  2. 시간-인간 사이보그
Ⅲ. ‘0’의 세계: 불구의 섹슈얼리티와 영원한 어긋남
Ⅳ. 나가며

국문초록 | 알파고 대 이세돌의 격돌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2016년 이후 문학장에는 이미 포스트휴먼 열풍이 조성됐다. 이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흐름이 ‘SF 현상’을 타고 강화되었다. 2020년대 한국문학장에서는 신유물론의 방법론과 SF가 결합하며 ‘근대적 인간’ 범주를 재고하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퀴어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SF에서 주로 ‘사이보그’로 형상화되는 혼종적 존재에 대한 사유가 관점의 징검다리 없이 급속히 이루어진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졌다. 담론장에 사이보그를 강력히 도입했던 도나 해러웨이는 장애를 은유적 형상으로 도구화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으나, 문학장은 여전히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를 적극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의 측면에서 포스트휴먼의

* 任惠旼 이화여대 현대소설 전공 박사과정 hyemin9051@ewha.ac.kr
투고일: 2026. 5. 22. 심사완료일: 2026. 6. 12. 게재확정일: 2026. 7. 13.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6.50..179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때문에 본고는 사유의 과정 안에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이보그에 대한 비판적·불구적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앨리슨 케이퍼의 '불구화된 사이보그(Cripped Cyborg)'라는 분석틀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휴먼에 장애의 축을 더하는 작업을 도모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긴밀하게 결합한 '기계'의 개념을 확장하고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전사적 상상력을 제안한다. 이어 장애 인물을 통해 인간성을 질문해온 한강의 『희랍어 시간』을 포스트휴먼적 시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2016년으로부터 이어진 포스트휴먼 논의에 '장애'를 결합하고 한강을 2020년대적 맥락 안에 기입하는 하나의 독법을 제시한다.

핵심어 | 포스트휴먼, 불구화된 사이보그, 장애, 한강, 희랍어 시간

Ⅰ. 들어가며

2020년대 한국문학장에서 SF의 약진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SF는 타자로서 여성, 소수자, 퀴어, 장애의 문제와 접속하고 로봇, 사이보그와 클론을 포함한 비인간 존재자들과 공감하도록 다양한 독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1] 특히 그것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세계를 바꾸는 장르"[2]라는 점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SF가 수반하는 다양한 효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포스트휴먼'에 대한 강렬한 관심이다. 2020년대를 열면서 직접적으로 디스토피아를 체감하게 한 코로나19 팬데믹은 SF 현상이 급속히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1) 연남경, 「사변적 페미니즘으로 본 SF 현상과 연결됨의 윤리 - 「얼마나 닮았는가」, 「리셋」, 「오래된 협약」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60, 이화어문학회, 2023, 72쪽 참조.

2) 김윤정,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장애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불구성(不具性)」, 『이화어문논집』 58, 이화어문학회, 2022, 85쪽.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류세 논의와 더불어 '인간의 위치'를 고민하는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간의 시각을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의[3]와 이항대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4]가 있었고,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반문이 이어졌다.[5]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문학사 최초로 SF의 시대를 맞이하며 "SF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논의가 있었다.[6] 그에 따르면 SF 현상은 "2016년 '#문단_내_성폭력' 폭로로 이어진 저항의 흐름과 강남역 젠더사이드를 겪으며 문단과 독자가 만난 상황에서 페미니즘 리부트와 연결된 움직임"[7]으로서 2018년 '김지영 현상'을 잇는 후속 흐름이라고 분석된다.

그런데 사유의 흐름이 어쩐지 익숙하다. 2000년대 한국소설의 중요한 특징으로 거론되는 '묵시론적 상상력'은 현대 과학기술의 비극적 역설을 성찰하며 휴머니티의 기원에 대한 재사유를 이끌었다.[8] 그 과정에 문학장에서는 SF나 하드고어의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후 2016년 3월에 열린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국(對局)은 새삼스런 충격

3) 김보경, 「인간의 가장자리로 걷기 – 여성, 동물, 기계」, 『문학과사회』 33(2), 문학과지성사, 2020, 420-442쪽.
4) 김미정, 「인간의 조건, 존재의 재구성: 비오스, 가치화, 개체를 질문하며」, 『뉴래디컬리뷰』 1, 뉴래디컬리뷰, 2021, 19-48쪽; 김보경, 「경이의 세계, 시라는 경이」, 『문학동네』 119, 문학동네, 2024, 94-113쪽; 송현지, 「수행하는 시인과 행위하는 시 – 성다영, 신이인, 조시현 시에 대한 첫 노트」, 『문학들』 72, 심미안, 2023, 24-41쪽.
5) 최진석, 「탈인간을 위한 시-차들 – 거대한 연결의 시적 조건」, 『문학동네』 110, 문학동네, 2022; 전청림, 「인간 책임주의 선언 – 신유물론과 비인간 담론의 재독해」, 『자음과모음』 59, 자음과모음, 2023, 296-307쪽; 하혁진, 「멸망 이후의 에피파니: 영매가 된 주체들」, 『문학동네』 119, 문학동네, 2024.
6) 연남경, 앞의 논문, 68쪽.
7) 위의 논문, 70쪽.
8) 신수정, 「종말 의식의 재현과 휴머니티의 기원 – 2000년대 한국 소설의 묵시록적 상상력」, 『한국문예비평연구』 3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으로 작용하여 문학장에 포스트휴먼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데 이르렀다. 당시의 진단은 계간『문학동네』의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특집으로 이어져 "최첨단을 달리는 기계와 기술 '바깥으로' 인간이 달아날 수 없음"[9]을 표방했다.『문학동네』의 해당 특집호에는 캐서린 헤일스와의 대담, 도나 해러웨이·로지 브라이도티·캐서린 헤일스의 포스트휴먼 이론의 개념적 정리,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등이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머니즘 열풍'은 SF 현상보다 한 걸음 먼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SF 현상을 맞닥뜨렸고 다시금 포스트휴먼 전회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당대 문학장의 사유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2020년대 포스트휴먼적 사유의 발전적 고찰을 위해 2010년대와의 재접속이 필요하다.

한편 2019년에 차미령은 '알파고 대 이세돌'로 인해 촉발된 '인간/휴먼'에 대한 의문에 2016년 이후 발생한 사회적 맥락을 기입한다. 그는 페미니즘 리부트, 미투 운동,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을 거치면서 누구를 '인간'이라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로 SF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포스트휴먼 논의의 주제적 범주를 넓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2010년대 여성소설(황정은, 윤이형, 김애란, 박솔뫼, 박민정, 임솔아)을 끌어와 포스트휴먼 내러티브의 지형도를 새로 썼다. 이를 통해 포스트휴먼의 시각으로 2010년대의 문학을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들이 당시의 언어로는 읽어내지 못했던 "포스트휴먼의 조건들, 곤경들, 가능성들"을 읽어내고 있었음을 증명했다.[10] 본고는 그러한 지향을 이어 포스트휴먼에 2019년 이후의 맥락을 기입해 2010년대 소설을 재독하려 한다. 이때 발생하는 시차(時差)에 따른 시차(parallax)[11]는 독법의 변화에 현실의 축을

9) 문강형준,「문화현상」,『문학동네』23(2), 문학동네, 2016.
10) 차미령,「고양이, 사이보그 그리고 눈물 – 2010년대 여성 소설과 포스트휴먼 '몸'의 징후들」,『문학동네』26(3), 문학동네, 2019.
11) 인아영,「시차(時差)와 시차 parallax – 2010년대의 문학성을 돌아보며」,『문학과사

결합하는 시도로 이어져 과거의 소설과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을 단지 지나간 역사나 도구가 아니라 '현재'에 반응하는 또 하나의 생동하는 행위자로 만들고자 한다.

"시민사회의 주체로 여겨진 '시민'은 '모든 인간'을 표방했지만, 결코 '모든 인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12]고 할 때, '모든 인간'의 경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배제돼 온 존재가 있다. 바로 좀처럼 공론장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이다.[13] 차미령이 '인간' 범주 안에 젠더를 덧붙였다면, 본고는 2016년부터 이어진 포스트휴먼 논의의 맥락에 '장애'라는 벡터를 추가하려 한다.

문학장에서 장애와 관련한 연구는 SF의 부흥과 더불어 제한적으로 다뤄진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애 신체를 '일할 수 없는 몸'으로 정의하고 김보영 소설을 비장애중심주의에 맞서는 역진화의 패러디로 읽어낸 허윤[14]의 논의를 시작으로 김윤정은 김초엽 소설을 장애와 테크놀로지의 관계로 읽어냈고[15], '불구성'을 키워드로 이를 '여성 SF 문학'으로 확장한 후속연구[16]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황지선은 장애를 '사이보그'로 해석하며 과학과 장애의 교섭이 정상성의 개념을 다시 쓰고

회』 32(3), 문학과지성사, 2019.

12) 김미정, 「혼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 – 2017년 한국소설 안팎」, 『문학들』 50, 심미안, 2017, 36쪽.

13) 장애인들의 요구와 울분과 투쟁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동안 장애 문제는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적 없다. 이는 시민사회에서 열리는 주요 학술행사나 토론 행사에서도 대동소이하다. 장애문제는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의제로 초대받지 못해 왔으며 이동권 투쟁 등을 통해 많은 곳에서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담론화되지 않았다.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25-30쪽.

14)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 – 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0-35쪽.

15) 김윤정, 앞의 논문.

16) 김윤정,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장애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불구성(不具性)」, 『이화어문논집』 58, 이화어문학회, 2022, 83-119쪽

있음을 짚어냈다.[17]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은 장애 신체를 다루는 목적과 수사가 달라졌을 뿐, 장애 신체가 여전히 특정 담론을 위한 문학적 환유로 활용되며 후경화되는 기존의 관성[18]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학 연구가 엘리슨 케이퍼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개념이 장애 신체를 인종처럼 간주하고 이를 추상적 기호로 대상화한다는 점[19]에서 비판했다. 해러웨이의 방식이 이분법을 허물기보다 오히려 영속화하며, 장애를 단일하고 보편적인 경험으로 고착시킬 뿐 장애인을 능동적인 참여자로 상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20] 수전 웬델 역시 해러웨이의 입장이 신체를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구성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몸의 실질적 고통이나 구체적 경험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1]

그러나 케이퍼는 해러웨이의 개념이 내재한 위험과 가능성에 모두 주목하면서 장애 관점에서 사이보그 형상을 밀어붙이자고 제안한다.[22] 이러한 전환은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인간/기계의 접속이 언제나 유익하거나

17) 황지선, 「장애-사이보그: 불화의 상상력과 타자-되기의 윤리」, 『한국문예창작』 21(3),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179-202쪽.
18) 장애인의 생활체험을 탈각한 채 장애를 하나의 미학적 은유나 상징으로 사용하는 태도는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역사와 더불어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한국문학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었다. 이선민·송지은, 「문학적 장애재현의 물질성과 생성력: 미스핏(misfit)과 비체(abject)이론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2018, 5쪽.
19)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혼종화 경험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의 실질적 경험을 경시하고 장애를 담론을 위한 자의적 은유로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어쩌면 신체 마비를 비롯한 중증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장치와의 복합적인 혼종화 경험을 가장 강하게 시도하거나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78쪽.
20) 앨리슨 케이퍼,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이명훈 옮김, 오월의봄, 2023, 269-283쪽 참조.
21)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그린비, 2013, 312쪽 참조.
22) 앨리슨 케이퍼, 앞의 책, 299쪽.

즐겁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정, 사이보그 관련 글들에서 찬미하는 사이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많은 장애인에게 부족하다는 인식, 사이버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 관행을 무너뜨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 모든 장애인이 기술적 치유나 교정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자각"[23]등이 동반될 때 가능해진다. 이에 장애의 관습적 은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사이보그에 대한 비판적이고 불구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케이퍼의 '불구화된 사이보그(Cripped Cyborg)'라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는 기술적 환상에 매몰되지 않고 신체의 물질성을 끝까지 배태한 사이보그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관점으로 최새흰[24]은 '크립 사이보그'[25]라는 개념을 활용해 사이보그화된 장애 형상을 정치적으로 사유하고자 김초엽의 소설에 나타난 크립 사이보그 형상들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여러 장애학자들이 지적한 해러웨이의 한계를 정확히 응시하지만, 2020년대 SF 장르를 통해 사이보그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현재적 맥락 안에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본고는 '크립 사이보그' 개념을 주요하게 참조하며 '인간' 개념에 장애의 축을 더해주는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전사(前史)를 찾아보려 한다. 이 지점에서 2011년 출간된 한강의 『희랍어 시간』을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원형을 그려내는 소설로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지점에서 한강 소설이 특별한 것은 최선을 다해 언어로 '몸'을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언어를 이탈하는 뭔가가 있음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26] 『희랍어 시간』은 그렇게

---

23) 위의 책, 299-300쪽.

24) 최새흰, 「크립 사이보그로서의 장애 신체·정신 – 김초엽의 『로라』, 『므레모사』, 『파견자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68, 반교어문학회, 2024.

25) 최새흰은 '크립 사이보그'를 "문명/자연, 인간/기계, 정상/비정상, 장애/비장애, 의존/독립과 같은 이분법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형상"으로 정의한다. 위의 글, 263쪽.

26) 수학을 포함한 모든 언어는 비유적(figurative)이라며 수사학을 적극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이보그 형상을 만들고 강력한 은유를 형성했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가 '죽은 은유'가 되어버렸다(문자적으로 그 의미가 고정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에 따라

언어를 통한 비유로 다 포착되지 않는 잔여가 있음을 '영원한 어긋남'이라는 소설의 최종원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징검다리로서 적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문단_내_성폭력 사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등의 영향으로 젠더적 시각을 전면에 두고 있던 당대 여타 소설들에 비해 해당 소설은 그보다 이전에 쓰였음에도 애초부터 포스트-젠더의 공간을 상정한 채[27] '인간성'을 질문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 과정에서 한강은 장애 신체를 적극적으로 끌어오면서도 이를 낭만화된 은유로 소모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1994년 등단 이후 꾸준하게 장애 육체로 인간성을 탐구하는 소설을 써 온 한강의 소설 중에서도 젠더나 생태주의, 역사 등 색채 짙은 한강의 다른 작품에 비해 '인간' 자체에 집중한다는 데 분석의 의의가 있다.[28]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2016년으로부터 이어진 포스트휴먼 논의에 '장애'를 결합하여 『희랍어 시간』을 2020년대적 맥락 안에 기입하는 또 하나의 독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분석에 앞서 신유물론의 영향을 짙게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를 '관계맺기'를 중심으로 재맥락화하여 제안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김애령,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 21, 한국여성철학회, 2014, 72-82쪽. 본고에서는 해러웨이 개념이 불러일으킨 긍정적 충격과 '물질-기호적 세계'안에서 재세계화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한편 비유를 벗어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길어올리기 위해 과감하게 '죽은 은유'를 버리고 사이보그의 범주를 확장하려 한다. 그랬을 때 그 방법은 언어와 담론을 결합하여 '바깥'의 균열을 감각하는 데 있다고 본다.

27) 『희랍어 시간』은 이성애를 전제하면서도 인물들의 성지향성을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성역할은 배제되어 있으며 오히려 그 경계를 지속적으로 흐려내어 이분법을 불식시키는 '인간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소설 속 공간을 포스트-젠더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8) 2024년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희랍어 시간』은 대개 『채식주의자』(2007)와 『소년이 온다』(2014) 사이에 발간된 소설로서 언급될 뿐 제대로 평가된 적 없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명원, 「어둠과 침묵 속의 이데아 - 『희랍어 시간』」, 『푸른사상』 51, 푸른사상사, 2025, 49-50쪽.

받으며 많은 작품들이 쓰이고 분석된 이후인 2020년대에 한강의 『희랍어 시간』을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전사로 읽어야 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설정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 인물이 기계와 결합돼 있음을 가시화하지 않는다. 이로써 사이보그를 단순한 '인간-기계 결합체'로 간주하고 기술적 환상에 매몰되어 장애를 은유화할 위험[29]에서 비껴난다.[30] 그러면서도 인물들은 사이보그로 판단할 수 있을만큼 기계와 밀접하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것과의 불화를 경험할 만큼 기계는 인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외형이 등장하지 않아 한강 소설에서 나타나는 사이보그의 전사적 맥락은 간과되기 쉽다. 그렇지만 2016년 『문학동네』 포스트휴먼 특집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 "도구는 물질적 외형이 아니라 그것들이 구축하는 관계의 내재적 연관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31]는다. 넓은 의미에서 '기계(machine)'는 인간과 도구의 내재적 연속성을 가리키는 개념이자 결합과 해체를 통해 연결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32] 따라서 이

29) 장애의 문제는 기술력에 힘입어 신체적 능력의 극대화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심귀연, 「기술시대의 인간과 장애에 관한 철학적 연구」, 『철학논총』 97(3), 새한철학회, 2019, 170쪽.

30) 2020년대에 'Chat GPT', 'Gemini' 등 인공지능이 일상을 지배하면서 과학기술은 2016년의 '알파고'와는 다른 양상으로 현대인에게 인지적 충격을 선사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기계' 개념은 인간과 대립된 외부적 물질로 간주되곤 한다. 문학장에서 포스트휴먼에 대한 문학연구 역시 대부분 명시적으로 '로봇'이 등장한 소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인간인식에 큰 영향을 주어 온 기계의 개념이 관념적으로 확장되어야만 인간성에 대한 탐구가 진척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불구화된 사이보그 또한 전사(前史)로서 이렇듯 관점의 징검다리를 놓을 때 한국문학장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 2020년대의 세련된 과학기술과 결합한 '기계-인간'으로서 '사이보그'의 의미화가 자연스러워지는 흐름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31) 최진석,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인간학 – 기계와 인간의 공진화를 위한 사회적 존재론」, 『문학동네』 23(2), 2016, 393쪽.

32) 위의 글, 395쪽.

소설에서 인간과 접속한 기계는 '언어'와 '시간'으로 설정된다. 언어는 근대적 구성물이자 최신 과학기술과 접촉하게 하는 원초적 도구에 해당하고, 시간은 특정한 제도와 관념을 인간과 삶에 불어넣는 기계[33]라고 일컬어진다. 때문에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기계와 긴밀히 결합한 사이보그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소설 속 사이보그는 장애를 은유로 도구화하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가 아니라 케이퍼가 재의미화한 '불구화된 사이보그'다. 즉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와는 달리 장애의 관점에서 현실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동반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해당 소설 속 사이보그는 불구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케이퍼가 전제한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네 가지 조건 중 세 가지를 명확히 현시한다.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인물들은 케이퍼의 불구화된 사이보그를 체현한다고 볼 수 있다. 1) 인간과 기계의 접속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전면화하고, 2) 장애를 가진 인물들이 기술적 치유와 교정에 무관심하게 그려지며, 3) 기술로 인해 노동관행이 재설정되어 장애인이 노동으로부터 배척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셋째, 소설 속 장애 인물들은 능동적 참여자로서 장애를 그대로 끌어안은 채 '몸'으로 다른 존재와 연결된다. 회복으로 귀결되지 않고 장애 신체가 내재한 고통의 경험을 그대로 끌어안은 몸과 몸의 연결은 규정적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물을 비순수화하며 권력을 오염시켜 결과적으로 비장애중심주의를 추궁한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언어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은유로 이용되어 온 경향이 짙다.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의 '미스핏(misfit)' 이론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비체(abject)'로서 갖고 있는 물질성과 생성력에 주목한 이선민·송지은의 연구[34],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중심으로 장애 인물의 신체 감각을 새롭게

33) 위의 글, 400쪽.
34) 이선민·송지은, 앞의 글.

발견한 최수현의 연구[35]를 제외하면 장애 재현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한 연구는 드물다. 일라이 클레어의 이론으로 치유 폭력 아닌 장애 인식을 구명하겠다는 구재진의 연구[36]는 당초 목적과 달리 장애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의 선행 연구에서는 오히려 중심인물의 장애를 '상징적 질환'으로 간주하며 장애보다 "문학과 예술에 관한 탐구의 서사"[37]로 한정하거나, 언어적 맥락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알레고리로 해석[38]하며, 주체 형성과 소통의 양상을 탐구[39]하고 있었다. 따라서 『희랍어 시간』은 중심인물들의 실재적 장애 경험을 전면화함으로써 일상어와 사어(死語)라는 구조적 이항대립을 교란하는 신체감각으로부터 서사가 추동된다는 관점으로 다시

35) 최수현, 「장애 인물의 신체 감각에 주목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문학교육학』 7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3, 233-269쪽.

36) 구재진, 「한강의 <희랍어 시간>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55, 한중인문학회, 2025, 215-222쪽.

37) 황경, 「한강 소설에 나타난 예술(가) 의식 연구 - 『희랍어 시간』과 『노랑무늬영원』을 중심으로 -」, 『Journal of Korean Culture』 45,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19, 237-266쪽.

38) 이인표, 「완전한 유대를 향한 욕망의 알레고리로서 『희랍어 시간』 고찰」, 『상허학보』 75, 상허학회, 2025, 231-264쪽; 김진규, 「한강의 『희랍어 시간』 속 분리와 연결의 역학」, 『현대소설연구』 9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33-69쪽; 이명원, 앞의 논문.

39) 박진, 「한강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의 양상과 타자 윤리 문제 - 『바람이 분다, 가라』와 『희랍어 시간』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287-309쪽; 양현진, 「한강 소설의 촉각적 세계 인식과 소통의 감수성 - 『희랍어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29-51쪽; 이선이, 「한강의 『희랍어 시간』에 나타난 화엄적 사유」, 『우리문학연구』 88, 우리문학회, 2025, 409-432쪽; 이하은, 「소통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형식 - 한강의 『희랍어 시간』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133-160쪽; 정영훈, 「사라진 감각은 또 다른 감각을 부른다 - 한강 『희랍어 시간』(문학동네, 2011)」, 『세계의문학』 37(1), 민음사, 2012, 454-457쪽; 전승민, 「만질 수 없음을 만지는 언어: 촉각의 소노그래피」, 『서울신문』, 게재일: 2021.01.01.,https://m.go.seoul.co.kr/news/life/2021/01/01/20210101038001?cp=go, 접속일: 2026.02.27.

읽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소설의 중요한 흐름으로 삼아 본고는 2장에서 불구화된 사이보그가 규범화된 '1'의 세계[40]에 거주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2장 1절에서는 '언어-인간' 사이보그로서 장애 인물의 면모를, 2장 2절에서는 '시간-인간' 사이보그로서 장애 인물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인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규범이 무화된 공간에서 불구화된 사이보그가 보여주는 행위자성과 인물들 사이의 연결에 주목한다. 이는 특히 장애 신체의 물질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주체성과 섹슈얼리티의 지형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한강이 특별히 불구화된 사이보그 사이의 '촉각적 감각'을 의도해[41] 조형해낸 영원한 어긋남이 기존의 규범적 세계를 가로질러 어떠한 대안적 연대와 주체성의 경로를 그려내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1'의 세계: 문화로부터의 이탈과 신체성의 감각

『희랍어 시간』의 세계는 크게 두 양상으로 구분된다. 코드화된 '1'의 세계와 규범이 무너진 '0'의 세계가 이에 해당한다. 젠더, 계급, 장애 층위에서의 교차성으로 인한 혼종적인 몸을 가친 채로 '1'의 세계를 사는 인물들은 인간과 기계,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흐리면서 규범과 불화

40) 한강은 1장의 제목을 '1' 그대로 두고, 마지막 장을 23장이 아닌 '0'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본고는 결함없는 '1'에서 텅 빈 '0'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구성을 의미화하며 소설 분석에 적극적으로 차용하고자 한다.

41) "이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촉각적 순간들에 집중하고 싶었다. (…) 이 소설을 쓰면 나는 묻고 싶었다.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 그 부인할 수 없는 온기를 어루만지는 것 - 그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한강, 『빛과 실』, 문학과지성사, 2025, 14-15쪽.

한다. ‘1’의 세계에서는 케이퍼가 제시한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조건이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해, 인간-기계의 접속이 언제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과 모든 장애인이 기술적 치유와 교정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술 발달에 따라 노동의 장에서 점차 배제되는 노동관행의 메커니즘이 주인공 여자와 남자가 세계와 마찰하는 서사를 통해 전면화된다.

일반적으로 ‘기계’는 19세기 산업화로 인한 ‘기술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져 생물학적 유기체와 구분되는 존재로 자주 호명된 개념이다. 그런데 조르주 캉길렘은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러 날이 갈수록 기술이 일상을 장악하며 기계가 갖는 의미가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유기체가 갖는 통일성과 우선성이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급기야 기술을 인간의 지성적 산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기계적인 것을 유기적인 것 안에 기입시켰다.[42] 기계에 대한 개념적 확장은 들뢰즈-가타리에 이르러 기술적 기계의 범위를 초월한다. 그리고 “물질적 에너지, 연산적이고 기호적인 공식, 인간 신체가 지닌 기관, 정상적인 표상이나 정보, 욕망이 생산해내는 주체성 등의 요소”[43]를 모두 포괄하며 그것의 기술적 기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배치’의 문제로 시각을 옮긴다. 기계적 예속에서 인간은 그때 그때의 접속과 절단의 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성립된다.[44]

탈인간보다 ‘탈-기계’를 주장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AI가 기하급수적으로 정교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기계를 인간과 연결된 존재로 이해하고, 이들의 배치 형태를 살피는 것이 사이보그를 논하는 데 더 용이해보인다. 기계적으로 예속돼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미분가능한 상태로 매개된 존재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표적 기호학은 전제된 언어 없이 자기-생성을 통한

42) 김주희, 「기계와 유기체의 관계 및 생명 개념의 변화, 그리고 생태철학의 문제 - 캉길렘과 들뢰즈-가타리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 『철학논고』 6, 단국대학교 철학연구소, 2023, 93쪽 참조.
43) 위의 논문, 94쪽.
44) 위의 논문, 같은 쪽.

신체성을 예시한다.[45] 이에 대한 전사(前史)적 상상력을 살피기 위해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이론을 따르되, 그것이 언어와 시간 등 근대적 기표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사이보그 신체를 소환해야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생산성과 직결되며 일원적 기준에 따르도록 삶을 재편하는 '시간',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주요 기제이자 인간 주체를 규정해 온 '언어'[46]를 다룬다. 본고는 각각을 개별적 범주로 구분하고 그것들이 '기계'로서 인간과 배치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인간'이라는 단일성을 해체하여 '기계-인간'으로 새롭게 미분할 때 결핍이라 여겨졌던 장애는 다양한 배치 속에서 적응의 문제로 탈바꿈된다.[47]

1. 언어-인간 사이보그

> 남자와 여자가 한 침상에서 보낸 첫 밤이자 마지막 밤, 새벽이 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장검이 놓여 있었다. 그 '서슬 퍼런' 칼날이, 만년의 보르헤스와 세계 사이에 길게 놓여 있었던 실명(失明)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48]

소설을 여는 위의 이야기에서 한강은 명확히 하나의 '세계'를 설정한다. '서슬 퍼런 칼날'은 양극단의 두 축을 가르는 빗금 기호('/')를 닮았다. 보르헤

45) 이재준, 「행동하는 지능, 관계하는 기계 그리고 로봇」, 『횡단인문학』 5,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20, 116쪽.
46) 포스트구조주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단지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에 따른 것이며, 그러한 개념 역시 언어적인 것일 뿐이라는 통찰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준, 앞의 논문, 108-109쪽.
47) "장애는 존재의 결핍이 아니라, 세계와의 부적응이라는 점이다.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적응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한다는 것이다." 심귀연, 앞의 논문, 179쪽.
48)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1, 8쪽. (이후 인용은 본문에 쪽수로 표기한다.)

스와 세계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를 가르는 장검이 존재하는 '1'의 세계는 그러므로 '/'를 닮은 획일화된 세계이자 타자화된 존재가 틈입할 수 없도록 차이를 제거한 이원론적 세계를 의미한다. '칼날'을 '실명'과 같은 층위에 두는 서술은 장애에 대한 판정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원리를 암시한다. 실제로 말을 잃은 여자를 "교실 뒤쪽으로 내쫓"(15)고 뺨을 때려 통제했던 과거는 정상성에서 벗어난 신체를 다루는 사회권력의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한 장면이다.

때문에 여자는 '1'의 세계에 포섭되지 못하고 이처럼 '서슬 퍼런 칼날'에 의해 손상되어버린 존재가 된다.[49] 여자는 자신의 실어(失語)가 "어떤 특정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는 것"(165)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보통이 아닌(extraordinary)'[50] 정신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배척된 경험이 축적되어 증상으로 발현된 것이었다. "신체성을 넘어선 문화적 상호작용"[51]을 위해서는 언어가 꼭 필요하고, 그렇다는 점에서 '1'이라는 문화적 세계 안에서 모든 인간은 언어와 연결된 언어-인간 사이보그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녀가 말을 멈추고 발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자가 갖게 된 정신장애의 신체성을 선취하고 본래 갖고 있던 사회적 매개로서 언어라는 기계와 거리를 두려는 의지로 읽힌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에게 "최초의 강렬한 기억"(14)을 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순간은 "볕을 받아 따뜻해진 등과 목덜미, 작대기로 흙바닥에 적어간 문자들. 거기 아슬아슬하게 결합돼 있던 음운들의 경이로운 약속."(14)이다. 그만큼 그녀에게 언어는 분명 가장 중요한 감각이었다.

---

49) "세 치의 혀와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들, 헐거운 말들, 미끄러지며 긋고 찌르는 말들, 쇳냄새가 나는 말들이 그녀의 입속에 가득 찼다. 조각난 면도날처럼 우수수 뱉어지기 전에, 막 뱉으려 하는 자신을 먼저 찔렀다." (165)

50)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15쪽.

51) 최진석(2016), 앞의 논문, 393쪽.

>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입을 열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소름끼칠 만큼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하찮은 하나의 문장도 완전함과 불완전함,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을 얼음처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혀와 손에서 하얗고 뽑아져나오는 거미줄 같은 문장들이 수치스러웠다. 토하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15)

그러나 자라면서 그 '경이로운 약속'이 사회적 맥락에서는 '완전함/불완전함', '진실/거짓', '미(美)/추(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의미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소설 속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부분은 장애를 지닌 인물들의 위치성과 연결된다. 때문에 이후 여자는 폭력적 연결에서 떨어지고자 입을 닫는다. 이러한 '실어'의 행위가 그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전조증상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발성과 연결지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말을 잃는 장면이 곧바로 침묵으로 둘러싸이고 언어없이 움직이고 이해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통해 여자가 경험하는 실어증은 그 경위와 상관없이 규범의 잔혹성을 자각하고 나서 실어증을 앓는 능동적 발병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무질서를 의도하여 질서를 변형하려는 도발[52]로 확대된다.

이는 언어를 기계로 상정한, 즉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덧씌워지지 않은 원시적 기계의 층위에서 새롭게 미분된 언어-인간 사이보그를 통해 노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폭력성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최신 과학기술 또한 이와 동일한 문화적 메커니즘으로 형성되지만, 그것이 내재한 젠더편향성과 비장애중심주의 등은 화려한 기술력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는다.[53]

---

52) "불구는 질서에 대한 하나의 도발이고, 질서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특성을 지니는 무질서에 의해 변형된다." 앙리-자크 스티케, 오영민 역, 『장애: 약체들과 사회들』, 그린비, 2021, 128쪽.

53)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AI 젠더편향성은 역사·사회적으로 누적돼 만연한 젠더 편향에 토대를 두고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고, 김초엽 작가와 『사이보그가 되다』를 출간한 변호사 김원영은 CBS 라디오

인공지능이 문화적 언어를 기반으로 발달해왔다는 점[54]은 인간성이 언어의 층위에서부터 재정립되어야 함을 방증한다.

이를 일찍이 눈치챈 여자는 실어증과 정신장애로부터 발원하는 고통의 감각을 끌어안은 채로 신체성을 끝까지 밀어붙여 언어 대신 촉각적 감각으로 소통하려 한다. 감각적 확장은 시간을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구체화된다. 첫 번째 사건은 여자가 아홉 살 무렵에 키우던 백구가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받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일이다. 여자는 무작정 다가가 개를 끌어안았으나 개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물어뜯었다. 두 번째 사건은 '새'를 구하려는 마음이 도리어 새를 죽였던 상황이다. 여자는 새가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것을 보고 새를 밖으로 몰아주려고 벽을 툭툭 쳤지만, 새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여자가 두 걸음을 물러서고 나서야 길을 찾으려던 새는 남자의 오지랖에 유리문, 콘크리트 벽, 그리고 양철 우편함에 차례로 머리를 부딪히며 죽었다.

'백구', '새'와 얽히며 체험한 아이러니는 치유 폭력(curative vionlence)[55]을 가시화하는 동력이 되어, 규범적 서사의 공고한 틀을 허물고 인물들

와의 한 대담에서 비장애중심주의적 기획으로 인해 기술의 성과만이 강조되어 정작 장애인은 기술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인지현, 「"AI 젠더 편향성 심각…검증된 데이터 사용하고, 법에 성평등 조항 명시」, 『문화일보』, 게재일: 2023.11.08., https://www.munhwa.com/article/11394308, 접속일 2026.04.10.; 박재홍, 「"AI로 청각장애인이 목소리를 찾는다?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노컷뉴스』, 2021.03.18., 접속일 2026.04.10.

54) AI 젠더편향성의 근본 원인으로 정제되지 않은 특정 인종·연령·성별에 대한 차별 소스가 데이터로 사용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AI 챗봇 'GPT-3'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20~30대 미국·영국 백인 남성이 작성한 텍스트를 데이터로 학습하면서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편향성 논란이 나왔다. 인지현, 앞의 기사, 접속일 2026.04.10.

55) 치유 폭력이란 "타자를 소위 나아지게 해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타자가 지닌 차이를 지우려는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 안에는 장애의 존재를 그 자체로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을 비순수화한다. 근대 인간과 멀어지려 하는 정체성은 이따금 “자신이 사람이기보다 어떤 물질이라고, 움직이는 고체이거나 액체”여서 “그 어떤 존재와도 끝끝내 섞이지 않는 가혹하고 단단한 물질”(59)이라고 느낀다는 여자의 고백을 통해 심화된다. 여자의 정적이 오래 전 죽은 병아리 “삐비”(77)의 침묵과 겹쳐진다는 점은 사이보그로서 그녀의 정체성이 기계와 결합한 인간의 경계를 흐리고 인간-동물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한다.[56]

같은 궤에서 여자는 오로지 ‘눈’을 통한 감각적 소통만이 가능할 뿐 이를 언어체계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로써 ‘공통 언어(common language)’라는 규범적 수단을 폐기하고 ‘눈’을 통해 하나의 코드를 상정하지 않는 순수한 교감을 시도한다. 이 지점에서 “주어에 재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표현”(18)하는 희랍어의 ‘중간태’는 타자를 향한 일방적 투사가 아닌 주체의 내부로 수렴한다. 이는 완벽한 소통을 지향하는 공통언어에 맞서 의미의 단일성을 해체하는 ‘이종언어(heteroglossia)’적 실천으로 기능한다.

그러면서도 여자가 여전히 언어(불어, 희랍어)를 통한 자극을 추구한다는 점은 그녀가 언어-인간 사이보그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만 언제나 그 관계가 낭만적일 수만은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여자는 자신의 몸으로 ‘1’의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수단을 찾아 나선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계에 내재한 ‘신화’를 탈각시키려 노력한다. 비장애중심주의를 은폐한 언어 기계에 대항해 여자가 몸담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낯선 언어를 무기로 삼아 문화로 연결되는 규격화된 폭력과 싸우는 것이 한강의 불구화된 언어-인간 사이보그가 내재한 전복적 힘이다. 우연찮은 기회에 듣게 된 불어 단어가 열일곱 살 첫 실어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38쪽.

56) “사이보그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신화로 출현한다.”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23쪽.

해주었다면, 여자는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찾아온 상황 앞에서 "자신의 의지로 언어를 되찾고 싶"(19)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찾고자 하는 언어는 '하나'의 신체를 매개하는 세계의 언어가 아니라 여자가 경험한 육체성으로 새롭게 선취한 타자들의 목소리가 된다.

2. 시간-인간 사이보그

언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근대적 시간' 관념을 인간과 삶에 불어넣을 뿐 아니라 일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획하고 계획함으로써 현실을 창안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기계에 해당한다.[57] 인과적이고 규칙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 시간 개념이 근대적 일상과 과학을 촉진했다는 점[58]에서 시간-인간 사이보그를 2020년대 포스트휴먼의 뿌리로 해석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남자의 삶을 통해 시간-인간 사이보그로서의 정체성이 부각된다.

특징적인 부분은 언어-인간 사이보그가 세계와 어긋나면서도 그 구조 안에서 부드럽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시간-인간 사이보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한 능동성을 내재한다는 점이다. 남자는 '시간'이라는 기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 몸을 기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몸에 맞게 변형시키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케이퍼가 지적했던 사이버 기술의 접근성 문제, 그것이 지닌 시간 초월적 기능으로 인하여 노동 관행을 무너뜨리고 노동의 장에서 장애인을 도외시하는 문제, 모든 장애인을 치유의 서사로 편입시키려는 사회체제적 문제를 명확히 보이게 제시한 뒤, 한 번에 해결한다. 이에 인물들은 신체를 '고치지' 않고서도 온전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은 정상성 생산의 기초가 되므로[59] 일직선으로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

57) 최진석(2016), 앞의 논문, 400쪽.
58) 위의 논문, 같은 쪽.
59) 앨리슨 케이퍼, 앞의 책, 103쪽.

의도적으로 속도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일은 권력을 재조정하고 치유가 약속한 낙관으로 인해 끝없이 현재를 유예시키는 '접힌 시간성(folded temporalities)'[60]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유전에 의한 시각장애를 가진 주인공 남자는 독일 유학에 의해 삶이 양분된 교차성을 갖고 있다. 비행기가 한국으로 날아갈 때 "과녁이 아니라 과녁 바깥을 향해 힘껏 쏘아지는 것 같았"(149)다고 표현되는 남자의 소외감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자신의 장애와 이방인이라는 교차적 정체성에 의해 발생하는 배제를 전면화하는 부분이다. 극심한 우울감은 이러한 배제가 남자를 '노동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드는 주요 기제라는 점과 깊이 연관된다. 이는 남자가 여동생 '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잘 드러난다. 편지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빠른 속력으로 조직의 사다리를 밟아올라 젊은 나이에 간부"(82)가 되었지만,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자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마지막 순간까지 아파트 구석방에서 숨어 지냈다. 아버지의 삶은 빠른 속도로 조직의 간부가 된 능력과 별개로 장애 정체성 때문에 일의적 시간 안에서 노동할 수 없게 되는 노동관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61]

---

60) 김은정, 앞의 책, 28~29쪽.

61) 2020년대 첨단기술시대의 사이보그 전사(前史, 戰士)로서 남자의 아버지를 통한 접힌 시간 안에서의 장애인 고용 현실 진단과 남자가 보여주는 시간-인간 사이보그의 전복성이 중요한 이유는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노동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노력들이 기술시대와 접합하며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0년대의 휴머니즘/포스트휴먼을 돌아보는 2020년대의 시점에서 해당 소설의 배경이 '독일'로 제시됨은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독일은 100년 전통의 세계 최고 장애인고용정책의 선진국가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도 탈산업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융합이 대세가 되어 기존의 산업과 경제 구조, 사회적 관습 등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고용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을 2010년대에 이미 보여준 이 소설은 변화하고 있는 노동관행에 대한 하나의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전사(戰史)로 의미화할 수 있다. 이정주, 「AI 기술혁명 앞에 주춤거리는 장애인고용 강국 '독일'」, 『에이블뉴스』, 게재일: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를 통해 경험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이에 대한 아버지의 소극적 반응으로 인해 남자의 어머니와 란은 항상 그가 무일푼이 될까봐 남자의 일을 걱정한다.(72)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현재의 그는 안과 수술을 하지도, 일을 스스로 그만두지도 않고 빛을 잃어감에 따라 덩달아 느려지는 시간을 그대로 살아간다. 이렇듯 남자가 '접힌 시간성'에 연연하지 않게 됨은 전 애인인 요아힘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요아힘 또한 질병으로 인해 노동범주에서 배제된 존재이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고치기보다 세계의 논리를 뒤집자는 신선한 발상을 한다. 요아힘은 남자가 어디서든 발 딛고 살 수 있도록 그들만의 논리를 만들었다. 남자는 요아힘이 죽고 나서야 그가 세우려 했던 논리를 이해한다.

> 하지만 그 시절의 너를 사로잡은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지.
> 물리적 실재와 시간.
> 무無에서 뜨겁게 폭발하며 태어난 세계.
> 전진하기 전에 영원히 서성이고 있었던 시간의 씨앗.
> 그래, 시간.
> 보르헤스가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고 불렀던 것.
> 그 수수께끼를, 한 순간 쏘아져 영원히 날아가는 화살을, 그 안에서 불붙은 채 소멸에 맞서는 생명을 너는 맨손으로 만지고 싶어했지. (122)

스스로의 힘으로 장검을 거둘 수 없었던 보르헤스는 시간을 동력으로 삼아 소멸에 맞섰고, 요아힘은 그 화살을 맨손으로 붙잡으려 했다. 한번 쏘아진 이상 하나의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화살'을 일의적 시간의 은유로 볼 때 화살을 손으로 붙잡는 행위는 "장애 있는 몸과 마음을 시계에 맞추는 대신, 시계를 장애 있는 몸과 마음에 맞추"[62]는 '불구의 시간'과 조응한다.

2026.03.1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61, 접속일: 2026.04.11.

한강이 부조하는 시간-인간 사이보그는 견고하던 문화적 코드를 해체하고 장애 신체가 가진 취약성을 극복의 수사 안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전환한다. 여기서 치유는 "정상적인 과거로 현재를 대신하고, 동시에 특정한 종류의 정상적인 미래를 현재에 투영"[63]하는 치유 폭력이 아니라, 장애의 현존을 훼손하지 않는 비규범적 치유로 전치된다. 빛의 명암으로만 세상을 판별할 수 있는 남자에게 "형상과 동작들은 덩어리로 뭉개어져 있고, 디테일은 오직 상상의 힘으로만 선명"(38)하다. 때로는 그 불확실성이 세상의 노이즈를 가려주기에 불필요한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응급실에서 맞닥뜨린 풍경을 여자와 남자의 시각으로 각각 제시하는 부분에서 부조된다. 간명해진 남자의 인식이 상황 자체를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반해 여자의 시력은 맥락을 지나치게 자세히 파악한다. 그 바람에 객관적인 장면은 "앳된"(142), "눈물"(143), "모욕"(143) 등의 가치판단을 거쳐 한결 암담하게 구현된다.

다양한 몸을 엮어주는 '희랍어 시간'은 이러한 불구의 시간성을 확장시킨다. 희랍어를 배우는 시간은 구어(口語)로 소통할 수 없는 사어(死語)라는 희랍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어에 비해 매우 느린 시간성을 표방한다. 근대적 치유의 전형을 상징하는 '의예과'를 버리고 의학사를 공부하는 한 수강생의 존재는 이것이 치유의 의미를 전도시킨 새로운 시간임을 표상한다.

> 무거운 안경을 벗어들고,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흐릿한 세계를 둘러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감각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거대한 물질의 느리고 가혹한 흐름 같은 시간이 시시각각 내 몸을 통과하는 감각

62) 앨리슨 케이퍼, 앞의 책, 85쪽.
63) 김은정, 앞의 책, 23쪽.

에 나는 서서히 압도됩니다. (39, 강조는 인용자)

죽은 말을 배우는 이 시간은 육체성이 두드러지는 시간이다. 수업을 운영하는 남자의 시간이 그러하므로 눈을 감고 입을 단단히 걸어잠글 수 있는 수강생들의 자유의지는 시각적·청각적 침묵을 시간성과 밀접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들의 시간은 침묵과 교차하며 점점 느려지고 결국 "질서 정연히 배치되지 않은 순간에 초점을 둔 비틀어진 시간성"[64]으로 전이된다. 이렇듯 질서에서 미끄러진 시간성은 여자가 실어증에 걸린 이후 "말을 배우기 전, 아니, 생명을 얻기 전 같은, 뭉클뭉클한 솜처럼 시간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침묵"(16)에 사로잡히며 시간의 흐름이 재설정되는 부분과 "그녀의 시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어긋"나 "다시는 그녀의 시간이 그들의 시간과 겹쳐질 수 없을 것 같"(160)은 느낌에 압도되는 장면을 통해 강화된다.

'1'의 모양을 닮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끝없이 긴 문장들"(174)로 지각되는 '비'는 "보도블록에, 콘크리트 건물의 옥상에, 검은 웅덩이에"(174) 떨어지고 또 튀어 오르며 인물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에 한강은 언어, 시간이라는 두 기계와 결합된 사이보그로서 폭압적인 세상을 인물들이 '보통이 아닌' 몸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빈틈을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직선적인 '1'의 공간에 틈새를 만들어야만 다른 존재를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예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Ⅲ. '0'의 세계: 불구의 섹슈얼리티와 영원한 어긋남

이로써 '언어-인간' 사이보그를 통해서 기계와 접속하는 일의 양면성을 깨달았고, '시간-인간' 사이보그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장애 신체

64) 제인 갤럽, 김미연 역,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현실문화, 2023, 24쪽.

를 중심으로 인간을 둘러싼 문화적 구조를 재정립하는 방식을 실험해보았다. 3장에서는 '1'의 세계에서 상징적으로 탈출한 인물들이 규범 없는 '0'의 세계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특별히 이는 사랑을 통한 연결의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나아가 이 사랑은 '완성'을 향하지 않고, 두 불구 신체 사이의 기척(신체성)을 거쳐 '영원한 어긋남'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앞서 언급했던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면면(언어-인간 사이보그, 시간-인간 사이보그)은 이 지점에서 관계적 측면으로 확장된다.

재생산 미래주의로부터 고립된 장애인과 노인은 '무성(aseuxual)'적 존재로 가정된다.[65] 하지만 『희랍어 시간』은 젠더와 장애를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시도한다. 소설 말미에 연결되는 중년의 주인공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렇지만, 회상으로 제시되는 남자의 첫사랑(병원집 딸)과 첫 애인 요아힘과 관련한 서사는 비장애중심주의에 맞선 불구의 섹슈얼리티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현재진행형인 주인공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제외하면 소설에서 묘사되는 모든 사랑의 양상은 회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성을 통해(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일이 현재의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과거를 재건하는 방식으로 묘사된다. 이는 시간-인간 사이보그가 만들어낸 비선형적인 불구적 시간선 안에서 펼쳐진다.

먼저 남자의 첫사랑은 언어-인간 사이보그의 시행착오를 잘 보여준다. 병원집의 딸은 남자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46)이었다. 청각장애인인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여 남자는 첫사랑에게 독순술로 배운 대로 말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 '언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치유 과정에서 소통의 다른 방법을 삭제하고 극복을 강제하는 형태로 첫사랑 여자에게 가한 치유 폭력에 다름 아니다. 상대의 장애가 지닌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던 단순한 마음은 '칼'이 되어 그녀의 마음에 날카롭게 꽂혀 종내에는 관계를 종결시키기에 이른다. 병원집 딸은 당시의 남자가

65) 위의 책, 29쪽.

이해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혀 나무토막으로 남자의 얼굴을 쳤다. 이때 발생한 상처는 종결된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남자의 얼굴 위에 남아 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장애 표상이 가진 문화적 의미 때문에 자칫 간과하기 쉬운, 장애 인물들의 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치유 폭력을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남자가 그녀와 수기로 나누었던 '희랍식 논증'을 회상함은 이를 곱씹는 시점에서 소설의 배경을 '1'의 세계에서 '0'의 세계로 전이시킨다. 본래 희랍식 논증은 신의 부재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이 세계에는 악과 고통이 있고, 거기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다.
> 신이 선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는 무능한 존재이다.
> 신이 선하지 않고 다만 전능하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존재이다.
> 신이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면 그를 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
> 그러므로 선하고 전능한 신이란 성립 불가능한 오류다. (43)

이종언어를 지향하는 희랍식 논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통에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것을 '성립 불가능한 오류'로 결론짓는 무력함을 보일 때 첫사랑 여자는 "그렇다면 나의 신은 선하고 슬퍼하는 신"(43)이라고 응수한다. 이는 자율적이고 전능한 '근대적 주체'로 상정된 신의 위상을 해체하고, 권력의 지형을 '슬픔'과 '취약함'의 차원으로 재배치하려는 시도가 된다. 그리고 '선하고 슬퍼하는 신'이 관장하는 세계를 설정하는 순간 '0'의 세계가 열린다. '전능'이라는 표현이 은폐한 코드화된 능력주의에 균열을 내자, 그간 '성립불가능'이라는 명제 아래 명백히 존재하지만 비가시화되었던 선과 악, 슬픔과 고통이 물성을 얻는다. 이렇듯 가능과 불가능이 공존하는 세계에 대한 상상은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의 계보학적 조건 속에서 작동하면서도 그 체계의 위반을 상상하는 사이보그적

신체를 적극적으로 '불구화(cripping)'하는 수행적 실천이 된다.

한편 요아힘과의 관계는 장애 신체들 간의 섹슈얼리티를 표면화한다. 남자에게 요아힘과의 사랑은 병원집 딸과 지낼 때에 비해 이전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는 인지적 전환점으로 의미화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젠더를 횡단하게 되고, 장애 신체의 실질적 고통의 문제와 불구 섹슈얼리티가 소설 속에 그대로 서사화된다. 이 또한 사후적 회고로 이루어지지만 시간선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곳에서나마 남자가 자신의 내부에 숨겨두었던 사랑의 열망을 깨닫고 명확한 유성적(有性的) 존재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요아힘을 향한 사랑은 그가 죽은 이후에야 "인용과 암시와 논증"(120)의 외피를 쓴 이성적 영역에 모호하게 존재하던 섹슈얼리티를 몸의 감각적 차원으로 옮겨 놓는다. 더욱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요아힘이 암시하는 퀴어성은 "네가 내 얼굴을 만지고 싶어한다고 느꼈지만, 또는 내가 네 얼굴을 만져주길 원한다고 느꼈지만"(111) 그 느낌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으로 계속 되돌아가게 한다. 그가 살아있을 때 남자는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희랍어의 중간태처럼 재귀적으로 불려나오며 현재 남자의 행위자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 네가 나를 처음으로 껴안았을 때, 그 몸짓에 어린, 간절한, **숨길 수 없는 욕망**을 느꼈을 때, 소름끼칠 만큼 명확하게 나는 깨달았던 것 같아. 인간의 몸은 슬픈 것이라는 걸. 오목한 곳, 부드러운 곳, **상처 입기 쉬운 곳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은. 팔뚝은. 겨드랑이는. 가슴은. 샅은. 누군가를 껴안도록, 껴안고 싶어지도록 태어난 그 몸은.
> **그 시절이 지나가기 전에 너를, 단 한 번이라도 으스러지게 마주 껴안았어야 했는데.**
> **그것이 결코 나를 해치지 않았을 텐데.**
> **나는 끝내 무너지지도, 죽지도 않았을 텐데.** (123~124, 강조는 인용자)

‘아름다움’은 코드화된 것일 뿐, 적어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영원히 없다는 사실”(121)을 자각하고 나서야 남자는 역시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게 된다. 마침내 “진실이 어리석음을 파괴한다”(44)고 중간태로 말할 때, 아름다움에 관한 진실과 남자의 어리석음이 동시에 파괴되고 단단하게 불구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요아힘과의 추억은 훗날 남자에게 그리 찬란하게 기억되지는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던 시절은 어느 순간보다 각자의 몸이 지닌 ‘고통’을 선명히 감각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요아힘은 자주 명랑하게 화제를 남자의 눈의 상태와 장래의 문제로 연결시키며 남자에게 계속 점자를 배우라고 훈수를 두었다. 요아힘이 미래에 내게 될 책을 남자가 점자로 읽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남자는 매번 은밀하게 마음을 다쳤으나, 요아힘의 명랑한 무례는 그가 첫사랑에게 요구했던 독순술과 겹쳐지며 그의 행위자성을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적 구도로부터 밀어낸다.

다만 과거의 경험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은 남자가 “세상의 어떤 불행이든 스스럼없이 대해도 될 만큼 고통을 겪어”(110)본 요아힘의 통증을 자신의 것만큼 또렷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요아힘의 깡마른 몸, 불과 일곱 달 먼저 태어난 그의 얼굴이 이미 중년의 남자처럼 늙어 있다는 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된다. 그러다 어느 날 근교의 바위산에서 요아힘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사건은 남자에게 속옷이 땀으로 다 젖을 만큼의 생생한 공포감으로 각인된다. 이 대목은 문학 비평에서 자주 망각되곤 했던 장애 육체의 실제적 고통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요아힘의 죽음 이후 그때의 기억이 끊임없이 남자에게 돌아옴은 한강이 지향하는 관계의 양상인 ‘영원한 어긋남’을 선제적으로 경험하는 복선으로 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죽음(어긋남)으로써 역설적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앞선 장에서 일부 언급된 바 있지만, 소설 속에서 ‘침묵’은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이는 일상어로 표상되는 구조적 발화를 묵음 처리하고 시간을 서서히 흐르게 하며, 대안적 언어를 예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자의 20년 전 실어증과 지금의 실어증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 처음의 침묵이 출생 이전의 그것에 가까웠다면, 이번의 침묵은 마치 죽은 뒤의 것 같다. 예전에는 물속에서 어른어른한 물 밖의 세계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딱딱한 벽과 땅을 타고 다니는 그림자가 되어 거대한 수조에 담긴 삶을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다. 모든 언어가 낱낱이 들리고 읽히는데,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낼 수 없다. 육체를 잃은 그림자처럼, 죽은 나무의 텅 빈 속처럼, 운석과 운석 사이의 어두운 공간처럼 차고 희박한 침묵이다. (19)

처음의 침묵은 '미래'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물 안에서 '밖의 세계'를 관망한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죽은 뒤'로 상정되어 그림자의 모습으로 '거대한 수조에 담긴 삶'을 들여다본다. 수조에 담긴 삶이 규격화된 세계를 의미한다면,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발화하지 못하는 여자의 모습은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임을 추측하게 한다.

'비'는 '1'의 세계의 가시적 형태를, '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침묵"(174)의 형태로 새로 만들어진 '0'의 세계를 은유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텅 빈 세계는 어떤 범주도 인물들을 속박하지 않는 무(無)의 세계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이데아가 될 수 없는 '0'으로 회귀하는 까닭은 인간의 혼은 희랍어의 중간태로도 인간 내부의 "그 어리석고 나쁜 속성들로 인해 파괴되지 않"(105)기 때문이다. 다만 눈송이를 닮은 침묵과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기에 담지하는 변화의 가능성은 가치판단 없이 몸으로 관계 맺는 불구화된 사이보그 사이의 결합으로부터 시작됨을 알려준다.

> 심장과 심장을 맞댄 채, 여전히 그는 그녀를 모른다. 오래전 아이였을 때, 자신이 이 세계에 존재해도 되는지 알 수 없어 어스름이 내리는 마당을 내다보았던 것을 모른다. 바늘처럼 맨몸을 찌르던 말들의 갑옷을 모른

> 다. 그녀의 눈에 그의 눈이 비쳐 있고, 그 비친 눈에 그녀의 눈이, 그 눈에 다시 그의 눈이…… 그렇게 끝없이 비치고 있는 것을 모른다. 그것이 두려워, 이미 핏발이 맺힌 그녀의 입술이 굳게 악물려 있는 것을 모른다. (183)

희랍어 특유의 느린 시간성으로 20년 뒤 남자는 희랍어 시간에 여자를 만나 오래 지니고 있던 얼굴의 흉터를 '고(古) 지도'로 변모시켰다. 이로 인해 당시의 상처는 그때의 시간을 "오래전 눈물이 흘렀던 곳"(11)으로 봉합한다. 때문에 심장과 심장을 맞대 최대한 가까이 연결되려 해도 여전히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서로에게 가장 "부드러운 곳"을 맞대는 이어짐의 순간, 딱 맞붙은 그만큼만은 의심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희랍어 시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장애, 언어, 시간을 거쳐 타인과 유연하게 연결되면서 보여주는 다양한 면모는 과거의 '주체'를 재번역할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근대의 주객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타자 이분법을 벗어나 주체를 '행위자(actor)'로 호명하는 최근의 흐름과 닿아 있다. '0'이라는 미지의 공간에서 '내가 아닌 새로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의 씨앗을 갖고[66] 있음은 2020년대의 행위자와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은 2010년대를 여는 시점에 쓰인 소설로서 2000년대, 2010년대 주체와 선명히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구별된다는 점에서 2020년대의 행위자를 바로 세울 때 꼭 거쳐야 하는 참조점이 된다.

즉 『희랍어 시간』의 행위자는 자신을 압도하는 환경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고 내면적으로 자신을 압도하는 현실적 중력을 분명히 감각하고 있다. 이에 리얼리즘적인 규율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적 실험이 이루어졌던 2000년대 문학적 주체의 무중력과는 거리를 둔다. 또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일련의 구체적 사건을 경험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에[67] '사건' 이후 변화한

66) 위의 글, 같은 쪽.
67) 인아영,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밤은 아름답다」, 『문학동네』 121, 문학동네, 2024,

2010년대적 행위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설 말미에 이르면 돌아온 '원점'의 공간에서 여자의 말문이 드디어 터지는 듯하다. 그러나 그 순간 여자는 동시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 있을 것을 각오"(191)한다. 이는 애써 도착한 그곳이 결코 '이데아'가 될 수 없는 기원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되찾았다고 안심한 때에 필연적으로 어긋남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한강은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에게 가장 연한 부분을 내주며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연결을 초점화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장애를 가진 신체가 만나 발생되는 결핍의 연대 또한 다른 연대와 마찬가지로 신성화할 수 없는 평범한 연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그러므로 『희랍어 시간』이 다시 맞닥뜨린 원점은 '1'로 채워졌던 공간으로부터 망명한 자들이 각자의 몸으로 대등하게 만날 수 있는 전제없는 공간을 만들어준다.[68] 그 접속에 잠깐이라도 생겨나는 자긍심의 순간은 아무것도 없는 이 토양을 조금씩 비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69]

이 토양은 어떤 육체도 감히 미래성을 위협한다고 속단하지 않는 곳이다.[70] '1'의 세계를 지배했던 규범적 시간성은 미래의 약속에 모든 것을 부속시키는 강제적 미래주의의 시간이었다.[71] 때문에 재생산이 불가능한 퀴어나 노인들은 주류 시간성의 바깥에 있는 존재로 그려지기 일쑤였다. 반면 되돌아온 영점 조정의 순간 희랍어의 시간이 촉발했고, 한강의 대안적 세계에서 재설정되는 시간성은 세계로부터 부인되고 상처받았던 과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포함한다. 남자와 여자는 돌고 돌아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만났지만 이들의 미래는 도리어 지금부터 시작된다. 한강은

123쪽.

68) 일라이 클레어, 전혜은·제이 역, 『망명과 자긍심』, 현실문화, 2020, 92쪽.

69) 위의 책, 196쪽.

70) 앨리슨 케이퍼, 앞의 책, 95쪽.

71) 제인 갤럽, 앞의 책, 25쪽.

이렇듯 각자의 돌출되는 육체성과 장애 정체성, 언어-인간 사이보그가 조형한 타자들의 언어와 시간-인간 사이보그가 촉발한 불구의 시간성을 모두 포함하는 세계관을 2010년대를 열면서 이미 조성하고 있었다.

Ⅳ. 나가며

어느 시대건 압도적으로 평화로운 유토피아는 존재한 적 없겠지만, 2020년대는 유독 여러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시기로 기억될 것 같다. 세계적으로는 환경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몸으로 체감될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가 엄습하고 있고, 정치 차원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2024년 12월 전(前)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내란으로 인한 혼란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와중에 갈수록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기술은 먹이사슬의 최상단에서 세계를 장악한다 믿었던 '인간 신화'에 균열을 내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나은 결과물을 산출해 인간의 자리를 뺏고 인간을 인간이게 한다고 맹신했던 여러 핵심적 가치들을 하나둘씩 탈취하고 있다. 이처럼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은 세계 속에서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인간이란 무엇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자 본고는 현실사회적 맥락과 담론 그리고 문학사의 층위를 두루 고찰하려 노력하며 포스트휴먼의 전사(前史)를 탐구했다. 그러다 2016년에 이미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이 인류에게 비슷한 충격을 선사하며 문학장에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과 관련한 물결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2016년 이후에 발생한 2010년대의 주요 사건들과 결합하고 포스트휴먼에 젠더적 맥락을 더하며 발전했다. 그런데 SF 현상을 맞닥뜨린 이후 이는 주로 SF 장르와 결합하며 2020년대적 맥락 안에서 신유물론의 방법론과 밀착적으로 논의되는 바람에 관점의 공회

전 문제로 이어지는 듯했다. SF의 도움으로 '시민'의 범주에 여전히 누락된 존재가 있음을 발견했으나, 현재적 맥락만 가지고는 관점의 확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때문에 포스트휴먼 논의의 발전적 고찰을 위해서 2010년대와 2020년대를 이어주는 상상력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에 또 하나의 생동하는 행위자로 2010년대 소설을 소환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새롭게 찾아낼 수 있었다. 대개 휴머니즘으로 읽혔던 한강의 소설을 포스트휴먼이라는 확장된 시각으로 보며 배제되었던 존재들을 거꾸로 능동적 참여자로서 인간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보았다. 이는 포스트휴먼의 맥락에 '장애' 범주를 기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인물들을 사이보그 아닌 '불구화된 사이보그'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세상에 개입하고, 배제된 신체로 서로 연결되는 구체적 면면을 밝힘으로써 문학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은유로 등장해온 장애 신체를 온전히 읽어내는 독법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단계적인 접근을 위해 본고는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양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언어-인간' 사이보그와 '시간-인간' 사이보그가 그것이다. 사이보그의 면모를 세분화한 이유는 '기계'의 원초적 형상을 불러옴으로써 사이보그라는 개념에 내재된 편견을 깨기 위함이었다. 최신 과학기술과 연동된 '로봇 인간'으로 상징되는 외형적 물질성에 집중했을 때는 그 기저에 함의된 코드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언어'와 '시간'도 근대적 규칙을 형성한 오래된 기계임을 상기하고 이를 2020년대 사이보그의 전사적 상상력으로 두어 관점의 징검다리를 생성해보려고 했다.

이렇듯 구체화된 사이보그들이 결함을 끌어안은 채 서로 연결하는 양상을 강조함은 장애의 차원에서 묵과되어 온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더하는 작업과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폭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외부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표상되는 '연결'이 완결이 아니라 '영원한 어긋남'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치유 폭력과 코드화된 세계의 대척점에서 이를 타파하는 결말로, 장애가 동반하는 고통을 포함한 신체성을

끝까지 견지한 채 구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는 특히 한강의 소설을 불구화된 사이보그로 분석할 때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의 전사를 포착하려 했던 본고는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경계에서 포스트휴먼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문학사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야만 2020년대 기술담론과 밀착한 포스트휴먼 연구가 봉착할 수 있는 몰역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러하다보니 본고는 그 경계 어디쯤에서 휴먼도, 포스트휴먼도 아닌 허상의 흔적을 기록하는 결론에 머무르는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사라는 그림자를 좇는 일은 여전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포스트휴먼 담론이 가진 문제의식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쓴 글·인간이 한 생각을 통해 '인간'의 의미를 되묻는 일이고, 그러므로 무의미해보이는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 그 그림자를 일부라도 마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어긋남의 순간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로 남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1.

2. 논문 및 단행본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 – 2017년 한국소설 안팎」, 『문학들』 50, 심미안, 2017, 26-49쪽.

김미정, 「인간의 조건, 존재의 재구성: 비오스, 가치화, 개체를 질문하며」, 『뉴래디컬리뷰』 1, 뉴 래디컬 리뷰, 2021, 19-48쪽.

김보경, 「인간의 가장자리로 걷기 – 여성, 동물, 기계」, 『문학과사회』 33(2), 문학과지성사, 2020, 420-442쪽.

김보경, 「경이의 세계, 시라는 경이」, 『문학동네』 31(2), 문학동네, 2024, 94-113쪽.

김애령,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 21, 한국여성철학회, 2014, 67-94쪽.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김주희, 「기계와 유기체의 관계 및 생명 개념의 변화, 그리고 생태철학의 문제 – 캉길렘과 들뢰즈-가타리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 『철학논고』 6, 단국대학교 철학연구소, 2023, 87-118쪽.

구재진, 「한강의 <희랍어 시간>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55, 한중인문학회, 2025, 215-222쪽.

김진규, 「한강의 『희랍어 시간』 속 분리와 연결의 역학」, 『현대소설연구』 9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33-69쪽.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77-107쪽.

김윤정,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장애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불구성(不具性)」, 『이화어문논집』 58, 이화어문학회, 2022, 93-119쪽.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문강형준, 「문화현상」, 『문학동네』 23(2), 문학동네, 2016.
박진, 「한강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의 양상과 타자 윤리 문제: 『바람이 분다, 가라』와 『희랍어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287-309쪽.
송현지, 「수행하는 시인과 행위하는 시 – 성다영, 신이인, 조시현 시에 대한 첫 노트」, 『문학들』 72, 심미안, 2023, 24-41쪽.
수전 웬델,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역,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신수정, 「종말 의식의 재현과 휴머니티의 기원 – 2000년대 한국 소설의 묵시록적 상상력」, 『한국문예비평연구』 3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심귀연, 「기술시대의 인간과 장애에 관한 철학적 탐구」, 『철학논총』 97(3), 새한철학회, 2019, 169-186쪽.
앙리-자크 스티케, 오영민 역, 『장애: 약체들과 사회들』, 그린비, 2021.
앨리슨 케이퍼,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양현진, 「한강 소설의 촉각적 세계 인식과 소통의 감수성 - 『희랍어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29-51쪽.
엄미옥,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장애 정치와 취약성의 윤리」, 『한국문학논총』 99, 한국문학회, 2025, 431-467쪽.
연남경, 「사변적 페미니즘으로 본 SF 현상과 연결됨의 윤리 - 「얼마나 닮았는가」, 「리셋」, 「오래된 협약」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60, 이화어문학회, 2023, 65-102쪽.
이명원, 「어둠과 침묵 속의 이데아」, 『푸른사상』 51, 푸른사상사, 2025, 49-59쪽.
이선민·송지은, 「문학적 장애재현의 물질성과 생성력: 미스핏(misfit)과 비체(abject) 이론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2018, 2-45쪽.
이선이, 「한강의 『희랍어 시간』에 나타난 화엄적 사유」, 『우리문학연구』 88, 우리문학회, 2025, 409-432쪽.
이인표, 「완전한 유대를 향한 욕망의 알레고리로서 『희랍어 시간』 고찰」, 『상허학보』 75, 상허학회, 2025, 231-264쪽.

이하은, 「소통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형식: 한강의 『희랍어시간』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133-160쪽.
인아영, 「시차(時差)와 시차 parallax – 2010년대의 문학성을 돌아보며」, 『문학과 사회』 32(3), 문학과지성사, 2019, 5-24쪽.
인아영,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밤은 아름답다」, 『문학동네』 121, 문학동네, 2024.
이재준, 「행동하는 지능, 관계하는 기계 그리고 로봇」, 『횡단인문학』 5, 숙명여자대학교 인문 학 연구소, 2020, 107-126쪽.
일라이 클레어, 전혜은·제이 역, 『망명과 자긍심』, 현실문화, 2020.
차미령, 「고양이, 사이보그, 그리고 눈물 – 2010년대 여성 소설과 포스트휴먼 '몸'의 징후들」, 『문학동네』 26(3). 2019.
전청림, 「인간 책임주의 선언 – 신유물론과 비인간 담론의 재독해」, 『자음과모음』 59, 자음과모음, 2023, 296-307쪽.
정영훈, 「사라진 감각은 또 다른 감각을 부른다 – 한강 『희랍어 시간』(문학동네, 2011)」, 『세 계의문학』 37(1), 민음사, 2012, 454-457쪽.
제인 갤럽, 김미연 역,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현실문화, 2023.
최새흰, 「크립 사이보그로서의 장애 신체·정신 – 김초엽의 『로라』, 『므레모사』, 『파견자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68, 반교어문학회, 2024, 257-280쪽.
최수현, 「장애 인물의 신체 감각에 주목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 메를로-퐁티의 신체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3, 233-269쪽.
최진석,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인간학 – 기계와 인간의 공진화를 위한 사회적 존재론」, 『문학동네』 23(2), 2016, 389-415쪽.
최진석, 「탈인간을 위한 시-차들 – 거대한 연결의 시적 조건」, 『문학동네』 110, 문학동네, 2022.
하혁진, 「멸망 이후의 에피파니: 영매가 된 주체들」, 『문학동네』 119, 문학동네, 2024.
한강, 『빛과 실』, 문학과지성사, 2025.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 – 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0-35쪽.

황경, 「한강 소설에 나타난 예술(가) 의식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45, 고려대학교 한 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19, 237-266쪽.
황지선, 「장애-사이보그: 불화의 상상력과 타자-되기의 윤리」, 『한국문예창작』 21(3),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179-202쪽.

3. 기타 자료

박재홍, 「"AI로 청각장애인이 목소리를 찾는다?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노컷뉴스』, 게재일: 2021.03.18., https://www.nocutnews.co.kr/news/5518327, 접속일 2026.04.10.
이정주, 「AI 기술혁명 앞에 주춤거리는 장애인고용 강국 '독일'」, 『에이블뉴스』, 게재일: 2026.03.1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61, 접속일: 2026.04.11.
인지현, 「"AI 젠더 편향성 심각…검증된 데이터 사용하고, 법에 성평등 조항 명시」, 『문화일보』, 게재일: 2023.11.08., https://www.munhwa.com/article/11394308, 접속일: 2026.04.10.
전승민, 「만질 수 없음을 만지는 언어: 촉각의 소노그래피」, 『서울신문』, 게재일: 2021.01.01., https://m.go.seoul.co.kr/news/life/2021/01/01/20210101038001?cp=go, 접속일: 2026.02.27.

Abstract

A Prehistory of the Cripped Cyborg
-Focusing on Han Kang's Greek Lessons

Im Hyemin (Im, Hye Min)

After the 2016 confrontation between AlphaGo and Lee Sedol, which brought a great social shock, a posthuman trend had already formed in the literary field. Since then, a current that intensely questions what it means to be "human"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so-called "SF phenomenon." In the Korean literary scene of the 2020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expand the category of the "human" by combining the methodology of New Materialism with SF.However, compared to categories such as women and queer identities, research on disability remains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may stem from the rapid development of thought on hybrid beings—primarily represented as "cyborgs" in SF—without sufficient mediating perspectives. Donna Haraway, who strongly introduced the cyborg into discourse, faced sharp criticism for instrumentalizing disability as a metaphor, yet the literary field still actively invokes Haraway's cyborg. This may be precisely why discussions of the posthuman have not progressed further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ility.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a critical, crip intervention into the cyborg by employing Alison Kafer's analytical framework of the "Cripped Cyborg," which actively incorporates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into the process

of thought. Through this, it seeks to add the axis of disability to posthuman discourse. In the process, it expands the concept of the "machine" that is closely intertwined with humans and proposes a transgressive imagination of the "Cripped Cyborg." From this perspective, by analyzing Han Kang's Greek Lessons, which questions humanity through disabled characters, it presents another reading that situates Han Kang within the context of the 2020s by combining disability with the discussions that have continued since 2016.

Key Words : Posthuman, Disability, Cripped Cyborg, Han Kang, Greek Lessons